

III.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발전

주제 17)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

학 교	
학 번	
이 름	

1.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()의 이동

1) ()의 이동



- ① 원래 유럽 동쪽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던 ()이 4세기 무렵 ()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로마의 영내로 이동
- ② 이들은 당시 로마의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주로 로마의 용병으로 활동
- ③ 이후 로마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로마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분열된 로마 중에서 (서로마 / 동로마) 제국을 멸망시킴

2) (서로마 / 동로마) 제국 멸망 이후 나타난 ()의 국가수립

게르만족의 1차 이동	게르만족의 2차 이동
◦ 대표적인 부족: (동고트, 프랑크, 부르군트, 앵글로, 서고트, 반달, 유트) ◦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(가까운 거리 / 먼거리)이동 ◦ 대부분의 국가들이 (오랫동안 유지 /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단명)	◦ 대표적인 부족: (동고트, 프랑크, 부르군트, 앵글로, 서고트, 반달, 유트) ◦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(가까운 거리 / 먼거리)이동 ◦ 대부분의 국가들이 (오랫동안 유지 /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단명)

※ 위 내용의 빈 칸에 들어갈 지도를 아래에서 찾아 적절한 위치에 붙여 봅시다.



2.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

1)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

- ① 본거지로부터 (가까운 거리 / 먼거리 이동):
- ② (농업 / 무역 / 상공업)에 유리한 위치에 정착
- ③ 당시 강대국이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, 비잔티움 제국과 (가까운 곳에 / 먼 곳에) 위치:
- ④ 당시 로마인들이 신봉하던 크리스티교를 받아들여 문화적 이질감이 적었음.

2) 프랑크 왕국의 발전

	① - 프랑크 왕국의 (국왕 / 공제)로서 프랑크 왕국의 실권 장악 - 이슬람의 ()이(가) 침입하였을 당시 이들의 침입에 맞서 싸운 투르, 푸아티에 전투에서 (승리 / 패배) 북쪽 사람들은 마치 얼어붙은 빙벽처럼, 서로 뿔뿔하게 몸을 맞대고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. 그들은 칼을 휘둘러 아랍인들을 베어 넘겼다. 오스트라시아인(프랑크군)들은 거대한 팔과 강철 같은 신장으로 격렬하게 싸웠으며, 그들의 지휘관 카를루스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마치 '망치(Martel)'처럼 적을 내리쳤다.
	② ()의 도움을 받아 프랑크 왕국의 왕위를 차지하면서 (메로비우스 / 카롤링거) 왕조를 개창 "왕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권이 없는 자가 왕이어야 하는가. 아니면 실권을 가진 자가 왕이어야 하는가?"라는 피핀의 질문에 ()은(는) "실권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옳다"고 답했다. - 자신을 왕으로 승인해 준 보답으로 이탈리아의 라벤나 지역을 정복하여 ()에게 기증함으로써 (교황령 / 국왕령 / 신성령)을 인정하게 됨.
	③ -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여 광대한 제국을 건설 - 궁정 학교를 세우고 문예를 장려하여 '카롤링거 르네상스'를 이끌었음. - 교황과 (친밀한 관계 / 적대관계) 유지 : 800년 교황 ()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음 ⇒ 의의: (), (), () 융합된 서유럽 문화권의 형성

※ 위 내용에 들어갈 그림을 아래에서 찾아 적절한 위치에 붙여 봅시다.



3. 프랑크 왕국의 몰락



-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뒤 프랑크 왕국의 혼란 가중
- 카롤루스 대제의 손자 ()명이 영토분쟁으로 프랑크 왕국 분열



- 843년 (), 870년 ()을 체결함으로써 프랑크 왕국이 ()개로 분열됨